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9, No.9 (November 2009) pp.87-96

두벌당의(唐衣)에 관한 연구 I

- 겹당의 유물을 중심으로 -

구 남 옥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강사

A Study of Double-Layered Dangui I

- Focusing on the Remains of Double-Layered Dangui -

Nam-Ok Ku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투고일: 2009. 8. 21, 심사(수정)일: 2009. 9. 18, 게재확정일: 2009. 11. 2)

ABSTRACT

Dangui is a formal dress of the wives of high officers and royalty in Chosun Dynasty and it was worn as a day dress in palace and a semi-ceremonial dress in upper-class households. Among the remains of Dangui a double-layerd Dangui was found in which two sets of Dangui were combined to be worn as a single piece.

The double-layerd Dangui consists of an Over-Dangui and an Under-Dangui.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the remains for the Over-Dangui are as follows. As long as the colors of the remains are identifiable, all of the Over-Dangui were green, whereas the Under-Dangui and lining materials were red. The textile was mostly in woven silk with pattern and it was frequently decorated with golden wefts or foils. A breast embroidery with phoenix and a dragon embroidery were also found. Such Dangui was worn mostly by the high members of the king's palace including the queen, crown princess, bastard princess, and monarch. There were two exceptions of wearing Dangui outside the king's palace.

A simple Under-Dangui was made to enable a comfort fit of the two sets of Dangui and the suture was partially sewn. With three cloth strings and cuffs, two pieces of Dangui were eventually assembled into one piece of clothing. Differences between the remains and the documents were also found in regards to textile and wearers of Dangui.

Key words: Dangui(당의), double-layerd Dangui(두벌당의), under-Dangui(내작)

Nam-Ok Ku, e-mail: kunamok@hanmail.net

Ⅰ. 서론

당의(唐衣)는 조선시대 명부(命婦)의 예복 중 하나로, 소례복(小禮服)으로 착용되었으며 궁(宮)에서는 상복(常服)이었다.

옆트임 저고리의 일종인 당의는 미려한 곡선으로 구성된 도련이 특징이며 대부분 길과 동일한 색의 당코깃이 달려있고 소매 끝에는 흰색의 거들지가 부착되어 있다.

현재 색을 파악할 수 있는 당의 유물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녹색 겉감에 다홍색 안감이 대어져 있으며, 그 외에 자주당의와 천담복인 옥색당의 등도 전해지고 있다. 계절에 따라 사용된 직물이 다르고 홑 또는 겹으로 구성되어 있어 바느질법 또한 차이가 있다. 왕실에서는 당의에 직금(織金) 또는 금박(金箔)을 부가하여 신분상 우월성을 나타내었으며 봉황 흉배(胸背)나 용보(龍補)를 달아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었다.

당의 유물 중 같은 모양의 당의 2점을 만들어 합하여 마치 하나의 옷처럼 착용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이러한 당의를 지칭한 특별한 명칭을 찾을 수 없었으나 의차(衣次)가 비교적 상세히 언급된 「발기」[件記]에서 내작(內作)이 구비된 당의에 대한 기록으로 미루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선행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의를 4겹당의[1] 또는 두벌당의[2] 등으로 칭하고 있었다. 홑당의 2벌로 구성된 당의도 존재하기 때문에 4겹당의라 칭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두벌당의로 명하여 논문을 전개하고자 하며, 편의상 겉에서 보이는 당의는 겉당의, 안에 끼워진 당의를 내작당의라 칭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두벌당의에 대한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발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3], 박물관에 협조를 얻어서 직접 유물조사를 하였다. 조사하지 못한 당의의 경우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4]과 문화재대관[5]의 기록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벌당의 중 겹당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하며 홑당의에 대하여는 후속연구로 발표할 예정이다.

Ⅱ.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두벌당의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두벌당의를 지칭한 특별한 명칭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의차(衣次)가 비교적 상세히 언급된 궁중 「발기」에서 적의(翟衣)나 원삼(圓衫)과 같이 내작이 구비되어있는 당의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두벌당의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총 11건의 기록[6]을 발견하였다. 〈표 1〉

모두 초록색 직금당의에 내작으로 다홍색 당의를 받쳐 입고 송화색저고리와 분홍속저고리를 1작(作)으로 갖추어 입도록 되어있다.

겉당의의 소재는 크게 단(緞)과 사(紗)로 구분할 수 있다. 계사길례, 관례시의복볼긔, 계수십월길례시의복볼긔, 긔유정됴동궐냥뎐마마의뎌볼긔 등에서 겉당의의 소재로 별문단을 썼으며, 사로 만든 경우도 6건이 있었다. 뎡미가례시일긔에는 '봉직금장의복'으로만 표기되어 어떤 직물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내작당의는 모두 사직(紗織)이었다. 갑사, 숭수갑사, 문사 등이 사용되었고 문양은 접문(蝶紋), 화접문(花蝶紋), 주련문 등이 나타나 있다. 특이한 점은 겉당의를 문단으로 만든 경우에도 내작당의에 사직(紗織)을 쓴 것이다. 이는 두벌을 겹쳐 입기 때문에 투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분은 빈, 빈궁, 군부인 등 왕실 명부(命婦)들이 착용자로 나타나 있으며 길례(吉禮), 가례(嘉禮), 관례(冠禮) 등 중요 예식에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벌당의에 대하여 「발기」 이외에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다른 계층이 다른 목적으로 착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Ⅲ. 유물로 살펴 본 두벌당의

현존하는 당의 유물을 살펴보면 내작이 있는 두벌당의 총 12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두벌당의는 다시 겹당의와 홑당의로 구분할 수 있다. 두벌당의 중 겹당의 유물은 총 7점이 전해지고 있다. 〈표 2〉

〈표 1〉 문헌에 나타난 두벌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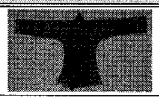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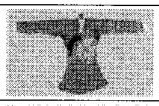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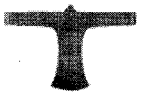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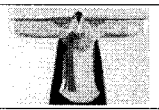
문 헌	년 도	내 용	신 분	출 처
계사길례	계사길례 (1793)	별문단직금당저고리 접문갑사내작	군무인	당의에 관한 연구 p.23
뎡미가례시일긔	헌종가례 (1847)	초록주련문사직금당져고리 다홍화접문사너작 송화식화문사져고리 분홍화문사져고리	경빈	가례시절차에따르는 조선후기의왕실여성 복식연구 p.102
		초록봉직금장의복 다홍갑사너작 송화식수한단의복 분홍장원듀의복		
임오쳔만셰동궁마마가례시 빈궁마누라의뒤불긔	순종가례 (1882)	초록별문갑사직금당고의 다홍별문갑사너작 송화식별문장원듀존누비소고의 분홍장원듀납작누비소고의	빈궁	고문서집성 12 p.33
		초록별문싱수갑사직금당고의 다홍별문싱수갑사너작 송화식장원듀존누비소고의 분홍장원듀존누비소고의		
		초록별문갑사직금당고의 다홍별문갑사너작 송화식별문장원듀존누비소고의 분홍장원듀납작누비소고의	빈궁	고문서집성 12 p.36
		초록별문싱수갑사직금당고의 다홍별문싱수갑사너작 송화식장원듀존누비소고의 분홍장원듀존누비소고의		
관례시의복불긔	의화군 길례 (1893)	초록별문단직금당져고리 다홍접문갑사너작 송화식장원듀져고리 분홍장원듀져고리		고문서집성 12 p.69
계ᄉᆞ십월길례시의복불긔		초록별문단직금당져고리 다홍졉문갑사너작 송화식장원듀져고리 분홍장원듀져고리	군부인	고문서집성 12 p.73
긔유졍됴동궐냥뎐마마의뒤불긔		초록별문단직금당져고리 다홍졉문갑사너작 송화식장원듀져고리 분홍장원듀져고리		고문서집성 12 p.100
의뒤금침불긔		초록주련문사직금당고의 다홍주련문사너작 송화식화문사소고의 분홍화문사소고의		고문서집성 12 p.164

1. 두벌당의 유물 고찰

1) 청송심씨 두벌당의

이 유물은 2003년 4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이장작업 중 한성부판윤 김원택(金元澤: 1683-1766)의 묘역에서 출토된 김원택의 배위인 청송심씨(1683-1718)의 당의로 83점의 복식과 함께 발굴되었다.[7]

〈표 2〉 두벌당의 중 겹당의 유물

번호	사 진	착 용 자 생몰년도	색		직 물		고름	깃	동정	특 징	소 장 처	출 처
			겉	내작	겉	내작						
1		청송심씨 1683-1718	?	?	연화 용문 단	포도 문단	긴고름 2개	목판 당코	0	봉황흉배	충북 대학교 박물관	본인조사
2		미상 17세기 말~18세기?	녹	홍	?	?	긴고름 1개	목판 당코	0	북한지방 출토품	황해남도 출토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V
3		화순옹주 1720-1758	녹 홍	홍 홍	목단 당초 문단	공단	긴고름 1개	목판 당코	0	금박	고려 대학교 박물관	본인조사
4		청연군주 1754-1821	?	?	도류 문단	운보 문단	x	목판 당코	x	금박흔적	석주선 기념 박물관	본인조사
5		청연군주 추정	?	?	도류 연화 문단	길상 문단	x	목판 당코	x	직금	세종 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대관
6		순정효황후 1894-1966	녹 홍	홍 홍	직금 단	호로 단	삼작	당코	0	금박 용보	세종 대학교 박물관	문화재대관
7		영왕비 1901-1989	녹 홍	홍 홍	직금 단	세주	삼작	당코	0	직금	국립고궁 박물관	본인조사

겉당의는 연화용문단(蓮花龍紋緞)에 명주로 안을 대었고 내작당의는 포도문단에 안감으로 명주가 사용되었다. 겉당의에 봉황흉배가 달려있다. 이 흉배는 의원군부인 안동권씨(1664-1772) 당의에 부착된 흉배와 도안 및 크기가 매우 흡사하다. 흉배 옆면에 실끈 2줄이 달려 있는데 이는 착장 시 흉배와 길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내작당의의 깃이 길과 다른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내작당의에 고름과 같은 소재의 자주색 깃이 달려있었다[8]. 따라서 이 내작당의는 광해군비(1576-1623)의 장저고리와 매우 유사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9] 〈그림 2〉

따라서 용문양의 직물과 내작당의의 유형을 통하여 청송심씨 당의가 왕실의 하사품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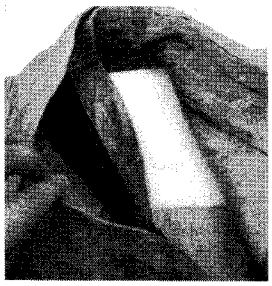
고름은 긴 고름의 경우 겉당의와 내작당의에 각각 달려 있었으나 짧은 고름은 소실되었다. 긴 고름이 분리되지 않도록 바느질하여 고정시켜놓았다. 안고름은 안깃 끝에 달려있었는데 두 당의 안깃과 함께 바느질하였다. 두벌당의가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깃은 목판당코깃이며 세주로 만든 동정이 당의와 내작당의에 각각 달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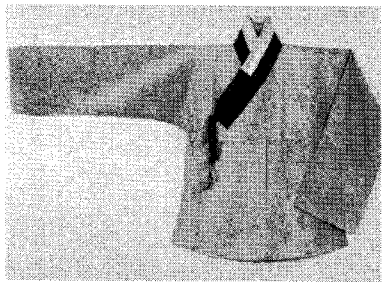
소매는 진동으로부터 소매부리까지 직선에 가까운 사선배래로 되어 있으며 옆트임 부분은 날렵한 곡선으로 되어 있으나 도련 부분은 완만하였다.

거들지는 내작당의와 함께 바느질되어 있으며 거들지 치수의 2배로 재단하여 안으로 접어 넣어 심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겉당의에 내작당의를 끼워 넣은 후 거들지를 겉당의 소매 위로 접어 두벌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등솔선, 섶선, 고대선을 따라서 시침질을 하였으며 깃 너비의 중간부분을 징그어 주었다.



〈그림 1〉 청송심씨 내작당의 깃 색상, 충북대학교 박물관



〈그림 2〉 광해군비 장저고리 의, 1996, p. 104.

2) 황해남도 출토 두벌당의

황해남도 백천군 원산리에서 출토된 당의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의 것으로서 조선 말의 당의보다 전반적으로 품이 크며 따로따로 만든 2개의 당의를 하나의 겹옷처럼 합쳐놓은 것이 특징이다.[10]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나 북한 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3) 화순옹주 두벌당의

이 당의는 영조 2녀 화순옹주(1720-1758) 유품인 당의이다. 연두색 목단당초문단에 수복자 금박을 박아 왕족의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11]

겉당의는 연두단과 다홍색 공단으로 만들었으며 내작은 홍색 공단과 홍색 삼팔로 지었다. 거들지는 한지로 속을 넣은 흰색 삼팔로 제작하였으며, 내작당의의 소매를 길게 만들어 수구 부분에 거들지를 시침질로 부착하였다. 당의 두벌을 끼워 넣은 다음 거들지를 겉당의 위로 접음으로써 하나의 당의를 이루게 된다.

깃은 목판당코깃이며 동정은 거들지와 같은 양식으로 구성되어 겉당의와 내작당의에 각각 달려있었다.

소매는 진동으로부터 소매부리까지 약간 좁아진 직선배래이며 도련이 세련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름은 자색의 주로 만들어 각각 따로 달려 있었으나 겉당의의 긴고름은 소실되었다.

겉당의와 내작당의 도련 둘레를 세땀상침질을 하여 내작당의가 밀려 나오거나 자락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고대부분은 시침질로 고정하였다.

4) 청연군주 두벌당의

이 유물은 청연군주(1754-1821)와 부군 김기성의 합장묘에서 출토된 복식 200여점 중 하나로 왕실용 당의이다.[12]

겉당의는 공단 바탕에 중간, 도련 끝, 깃머리리 부분에 도류수복문이 직조되어 있으며 문양이 없는 어깨에서 소매와 길 아래쪽 도련단 부분에는 금박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안감은 명주로 대었다.

내작당의는 겉감을 운보문단, 안감을 명주로 제작하였다. 특이한 점은 내작당의 소매를 운보문단이 아닌 안감인 명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두벌당의를 겹쳐 입었을 때 소매 부분이 투박해질 것을 고려하여 가볍게 만든 재봉법[13]으로 생각된다.

목판당코깃이며 깃머리부분은 바느질 하지 않고 트여놓았다. 동정은 달렸던 흔적만 있으며 동정달릴 부분을 홈질하여 약간 당겨놓았다.

겉당의의 안섶에는 주름이 없으나 내작당의의 안섶에는 1개 주름이 잡혀져 있었다.

소매는 진동에서부터 소매부리까지 약간 좁아진 사선배래로 소매통이 매우 좁다.

거들지의 소재는 공단으로 내작당의와 함께 바느질되어 있으며 거들지 치수의 2배로 재단하여 안으로 접어 넣어 심지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겉당의에 내작당의를 끼워 넣은 후 거들지를 겉당의 소매 위로 접어 두벌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옆선이나 도련부분을 징궈주지 않았으며 오직 거

들지 부분으로만 두벌이 고정되어 있었다.

고름은 흔적만 남아있었다.

5) 청연군주 추정 두벌당의

앞에서 논한 청연군주의 두벌당의와 사용된 옷감이나 재봉법 등이 매우 유사하여 청연군주의 출토당의로 추정된다.

겉당의는 직금 겹당의로 불필요한 이음선이 없으며 목판당코깃, 도련의 곡선이다 직선배래 등 전반적인 형태는 18세기 후반의 조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겉당의 겉감은 수복자문을 포함하여 도(桃)·류(榴)·연화(蓮花)·길상문 등이 제직된 문단이며 안감은 세주로 되어있다. 어깨 부분에 깃부터 수구까지 통수(通袖)스란이 직금되어 있고 아래 도련에도 직금으로 장식되어 있다. 내작당의의 겉감은 운보문단이고 안감은 세주를 받쳐 겹으로 만들어졌는데 겉당의와 달리 특별한 장식이 없다.[14]

깃은 목판당코깃이며 동정은 소실되었다.

소매는 진동으로부터 소매부리까지 약간 좁아진 사선배래로 수구에는 삼팔주로 된 거들지가 달려있다. 겉당의 소매 직금부분이 거들지 반까지 이어졌으며 흰색의 거들지가 위에 달려 수구는 곬으로 되어 있다.[15]

고름은 겉고름은 소실되어 있는 상태였고 안고름은 짙은 갈색이다.

고대, 도련 등을 부분적으로 징그어 주었다.

내작당의 겉 안길과 겉당의 안감 안길 쪽 어깨에서 19cm 내려온 부위에 실끈으로 꼬아진 4cm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16].〈그림 3〉 충북대 박물관 소장당의[17]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 겉·안이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한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순정효황후 두벌당의

순정효황후(1894-1966)께서 세종대에 기증한 유물로 20세기 초반의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현전하는 당의 유물 중 가장 격이 높은 당의이며 화려하고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측 거들지 후면에 "小禮服 唐古衣"라 쓰인 한지가 부착되어 있다.[18]

겉당의의 겉은 연녹색의 봉황운문단이고 안감은 홍색 세주를 다듬이한 도련주이다. 양 어깨에서 거들지 직전까지 길과 동일한 문양의 통수스란이 직금되어 있다. 이 직금단은 길 아래쪽 도련단에도 직금되어 있다.

양어깨와 앞뒤에 오조룡의 용보가 달려있다.

소매는 진동과 같이 직선이며 수구 쪽에 약간 둥글게 되어있어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형태에 비해 여유를 보인다.

고름은 내작당의 고름이 중복되어 달려있기 때문에 겉당의 섶에 달린 고름은 두 장으로 되어있다. 또한 안섶 위에 4개의 주름을 잡아 안깃에 넣어 바느질하여 안섶이 겉으로 처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고름과 동정, 거들지는 내작당의 겉감과 같은 호로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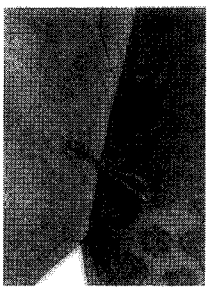
내작당의 겉감은 홍색으로 호리병, 박쥐, 화엽문, 문자문 등이 시문된 호로단[고단]이며 안감은 홍색 도련주이다. 형태와 구성은 겉당의와 동일하다.

고대, 도련, 겨드랑이 부분을 징그어 놓기도 하였다.

모두 자색으로 고름을 달아주었으며 내작당의의 고름은 문주이다. 겉당의의 두 개의 겉고름 윗부분을 중간에 징그어 주었다.[19]

7) 영왕비 두벌당의

이 당의는 영왕비(1901-1989)가 첫 아들 진(晉)왕자를 출산한 이듬해인 1922년 4월 순종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귀국하였을 때 의식에 착용한 것이다. 저고리와 속저고리 까지 일작으로 남아있는 왕실당의이므로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그림 3〉 실고리
문화재대관 2, 2006, p. 272.

겉당의는 연두색 단에 수복문과 봉황스란이 직금(織金)되어있었으며 안감은 홍색 세주로 구성되어 있다. 내작당의는 겉감이 겉당의 안감과 동일한 세주를 사용하였고 안감은 홍색 공단으로 되어있었다. 도련을 따라 징궈 두벌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마치 겉은 직금단, 안은 홍색 공단으로 구성된 것 같아 보인다.

고름은 보라색 단으로 만들어 두 벌에 각각 달았다. 긴 고름이 분리되지 않도록 가운데 부분을 징그어 고정시켜 놓았다. 안고름도 안깃 끝에 각각 달려 있었다. 전형적인 삼작고름의 양식으로 겉 긴고름 2개와 짧은 고름으로 고름을 매고 안깃에 달린 2개의 고름과 겨드랑이에 달려 있는 고름을 함께 묶어 고정한다.

깃은 깃머리가 둥근 당코깃이이며 문단으로 만든 동정이 당의와 내작당의에 각각 달려있다.

소매와 도련은 순정효황후 당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거들지는 동정과 같은 문단으로 만들어 두벌의 소매 부리에 한꺼번에 끼운 다음 성글게 감쳤다.

안섶에 주름 몇 개를 잡아서 안자락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2. 두벌당의 유물의 특징

1) 내작당의의 간소화

두벌당의는 겉당의 안에 내작당의를 끼워 중착(重着)하기 때문에, 겹쳐 입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시키는 구성법을 적용하였다. 그 방법으로 내작당의를 약식(略式)으로 제작하거나 크기 또는 부피를 줄이는 등 간소화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유물들이 내작당의를 미세하게 작게 만들었다. 그래서 겉당의 안에 끼웠을 때 옷이 울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였으며 내작이 겉에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문헌 상 기록을 통해 보아도 겉당의를 문단으로 만든 경우에도 내작당의를 사(紗)로 만든 것 또한 두벌을 겹쳐 입기 때문에 투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연군주의 당의와 같이 소매부분만 운보문단이 아닌 명주를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매는 활동량이 많은 부위이다. 특히 청연군주 당의처럼 소매통이 좁은 경우 단을 소재로 하여 4겹으로 제작한다면 거북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는 내작 소매를 명주로 만들어 약식으로 바느질 한 것은 활동성을 고려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연결방법

두벌당의는 두벌을 함께 입기 때문에 옷을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또 착용 후에도 아름다운 매무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바느질로 연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법으로는 바느질 한 방법과 거들지로 두벌의 수구를 연결한 방법, 그리고 삼작고름 등이 있었다. 유물에 나타난 두벌당의의 연결 방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 바느질

시침, 상침 또는 징그는 방법으로 옷의 부분을 고

〈표 3〉 두벌당의 연결 방법

번호	착 용 자	바 느 질							삼작 고름	거들지
		등솔	섶선	고름	도련	깃	고대	진동		
1	청송심씨	0	0	0		0	0		0	접음
2	황해남도출토	확 인 불 가								
3	화순옹주				0		0			접음
4	청연군주									접음
5	청연군주 추정				0		0	0		접음
6	순정효황후			0	0		0	0	0	끼움
7	영왕비			0	0				0	끼움

정시켜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물에 따라 전반적으로 바느질 된 것과 꼭 필요한 부분만 바느질 한 것이 있었는데 바느질 된 위치로는 등솔(1건), 섶선(1건), 고름(3건), 도련(4건), 깃(1건), 고대(2건), 진동(2건) 등이다.

청송심씨의 당의가 등솔선, 섶선, 고대선, 깃 너비 중간부분, 겉고름 등 가장 많은 부분에 바느질로 고정되어 있었다.

화순옹주의 당의는 도련 둘레를 따라 세땀 상침질이 되어 있었으며 고대 부분에도 고정시켜 놓았다.

청연군주 당의는 바느질로 고정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으며 청연군주 추정 당의의 경우 고대와 도련 부분이 부분적으로 징그어져 있었고 겨드랑이 부분이 실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순정효황후의 당의는 고대, 도련, 겨드랑이 부분과 고름 윗부분 중간을 징그어 놓았다.

영왕비의 당의는 섶에서 도련을 따라 진동까지 곱게 징그어 놓아 하나의 옷으로 착각 될 정도이다. 고름도 긴 고름 길이의 중간 부분을 징그어 주어 분리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2) 삼작고름

삼작고름은 겉으로 드러난 고름이 셋인 고름으로 둘은 겉고름의 색이고 긴 고름 하나는 내작 또는 안감의 고름색이다. 매는 방법은 겉옷의 겉섶과 내작의 겉섶에 달려있는 옷고름 두 개와 겉옷 안섶에 달려있는 옷고름 하나로 함께 고름을 매며, 속고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묶게 되어있다.

이것은 두벌을 착용하므로 고름의 매듭이 여러 개가 생겨 가슴부분이 불룩해지고 매무새가 거북스러워 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두 개의 포를 한 벌처럼 여며서 여러 점 착용하여도 겉돌지 않고 단정한 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20]

고름이 완형으로 전해지고 있는 유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름은 삼작고름이다. 착장 시 겉당의의 긴 고름과 내작의 긴 고름을 함께 겉당의의 짧은 고름과 매고 안고름도 겉·안의 안깃에 달린 고름 2개와 겉당의의 겨드랑이에 하나 달린 고름과 함께 매도록 되었다. 두 개의 긴고름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고름의 윗부분 또는 중간부분을 징근 유물도 있었다.

(3) 거들지

거들지로 두 벌을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내작당의 소매를 길게 만들고 그 부분에 흰색의 거들지를 달아 겉당의 소매 위로 접어 올리는 방법이다. 시기적으로 앞선 청송심씨 당의부터 청연군주 당의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별도의 거들지를 만든 후 이것으로 두벌의 소매에 한꺼번에 끼워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조선 말기 왕실당의인 순정효황후와 영왕비의 당의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 내작당의의 소매가 길기 때문에 힘받이 역할을 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힘받이를 위하여 한지로 배접하여 사용하였다.

3) 합봉(合縫)의 과정 규명

합봉이란 겹쳐 입던 복식을 바느질하여 한 벌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합봉된 복식의 특징은 겹쳐 입었을 때 표현되었던 복식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한 벌을 입으면서 여러 벌 착용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조복, 제복, 단령, 원삼, 구군복 등의 예복에서 합봉현상을 찾을 수 있었다.

당의의 경우 영왕비의 두벌당의를 보면 이러한 합봉현상의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왕실의 마지막 예복당의인 이 당의는 시기적으로도 조선 말기의 진보적인 성향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인 두벌당의와 달리 내작당의의 겉·안의 소재를 바꾸어서 겉감에 겉당의의 안감과 같은 세주를, 안감에 공단을 사용하였고 매우 고운 바느질로 도련을 바느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겉감은 직금단, 안감은 공단으로 구성된 한 벌의 겹당의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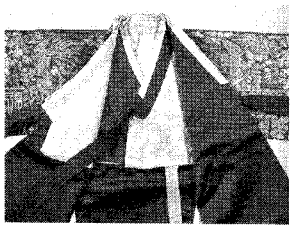
개화기 이후 당의를 보면 겹당의에 삼작고름을 달아서 마치 두벌당의를 착용한 것 같은 효과를 보이는 합봉현상이 나타나 있다.

Ⅳ. 문헌과 유물의 비교 분석

문헌에 나타난 기록과 유물을 비교하여 보면 일치하는 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4〉

1. 일작(一作) 구성

〈표 1〉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두벌당의는 초록색 직금당의에 다홍색 내작을 함께 입고 송화색저고리와 분홍속저고리 등을 일작으로 갖추어 입도록 되어있다. 〈그림 4〉은 영친왕비 당의 일습이다.[21] 녹색 직금당의에 다홍색 내작과 송화색저고리, 분홍속저고리 등 문헌과 일치하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영친왕비 두벌당의 일습, *조선조후기궁중복식*, 2002, p. 76.

2. 소재

겉당의와 내작당의의 소재 부분이 문헌과 유물과 차이가 있었다.

문헌에서 발견한 11점의 기록에서 두벌당의는 모두 직금당의로 기록되어있다. 유물의 경우도 대부분이 직금 또는 부금이 되어 있으나 청송심씨와 황해도 출토 당의의 경우는 직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두 경우 착용자가 왕실 명부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작당의의 경우에도 문헌에 따르면 겉당의의 소재와 관련 없이 모두 사직(紗織)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유물을 살펴보면 문양의 차이만 있을 뿐 겉당의와 같은 소재인 단(緞) 직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착용자의 신분

문헌에 나타난 착용자는 신분은 빈, 빈궁, 군부인 등 왕실 명부였다. 유물의 착용자 역시 황후, 비, 옹주, 군주 등 대부분 왕실 명부였으나 청송심씨와 황해도에서 출토된 유물과 같이 사가(士家)에서도 착용한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헌기록이 주로 궁중 행사의 기록인 「발기」에서 발견된 관계로 착용자가 왕실명부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유물 중에서 사가에 착용한 흔적이 있는 것을 통해 두벌당의가 사가의 행사에서도 쓰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송심씨의 경우 남편이 한성판윤을 지낸 고관이었고, 당의의 소재나 내작당의의 양식 등이 왕실의 것으로 생각되므로 왕실 하사품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이 두벌당의 중 겹당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에 나타난 두벌당의는 궁중 「발기」 중 내작이 구비된 당의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건의 기록을 발견하였다. 색은 겉당의는 초록색, 내작

〈표 4〉 문헌과 유물의 비교

비 교		문 헌	유 물
일 치 점		일작 구성 : 초록직금당의, 다홍내작, 송화색저고리, 분홍속저고리	
차이점	겉당의 소재	직금	직금, 금박 흔적 없는 유물 2건
	내작당의 소재	사직물	겉당의와 같은 단직물
	착 용 자	신분은 빈, 빈궁, 군부인	황후, 비, 옹주, 군주 외 2건

은 다홍색이었으며 소재는 단 또는 사직이었으며 직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빈, 빈궁, 군부인 등 왕실 명부(命婦)들이 길례(吉禮), 가례(嘉禮), 관례(冠禮) 등 중요 예식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물을 통해 본 두벌당의 중 겹당의 유물은 총 7점을 찾을 수 있었다. 색상은 확인 가능한 유물의 경우 모두 겉당의는 녹색, 내작은 홍색이었으며 모두 홍색 안감을 대었다. 직물은 대부분 문단이었으며 직금, 또는 금박으로 장식된 경우가 많았고 봉황흉배나 용보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다.

3. 착용자는 황후, 비, 옹주, 군주 등 왕실 명부가 대부분이었으며 왕실이 아닌 경우도 2건 있었다.

4. 두벌을 겹쳐 착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내작을 간소화 하거나 등솔, 섶선, 고름, 도련, 깃, 고대, 진동 부위를 시침질이나 상침질로 합봉하였다. 또한 삼작 고름과 거들지를 통해 분리된 각각의 의복에서 하나의 옷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므로 착용하기 간편하며 입었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5. 문헌 기록과 유물을 비교했을 때 일작의 구성 양식은 동일하였으나 착용자, 소재 등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추후 발견될 유물과 연계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권혜진 (2001). *당의에 관한 연구: 궁중 「발기」와 유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6.
2) 김은희 (2007). *조선시대 당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05.
박성실 (2006). 전왕비당의.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 77.
3) 「발기」가 궁중문서이므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논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4)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V*.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18.
5)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주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p. 76-79, pp. 270-273
6) 권혜진 (2001). *앞의 책*, p. 23.
김소현 (2009). 가례 시 절차에 따르는 조선후기의 왕실여성 복식연구. *복식*, *59*(3), p. 1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고문서집성 12*, 영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33, 36, 69, 73, 100, 164.
7) 우종윤 (2006).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복식 수습.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복식, 충북: 충북대학교박물관, pp. 91-92.
8) 2009년 3월 17일 본인 촬영
9) 석주선기념박물관 (1996). *의* 서울: 석주선기념박물관, p. 104.
10)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앞의 책*, p. 118.
11)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복식유명품도록*.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p. 236.
12)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명선 하*. 서울: 석주선기념박물관, p. 128.
13) 김은희. *앞의 책*, p. 107.
14) 문화재청. *앞의 책*, p. 273.
15) *위의 책*, p. 273.
16) *위의 책*, p. 272.
17) 충북대학교박물관 (2008). *조선시대 여인의 옷*. 충북: 충북대학교박물관, p. 29.
18) 문화재청. *앞의 책*, p. 77.
19) *위의 책*, p. 79.
20) 구남옥 (2008). 조선 후기 복식에 나타난 합봉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8*(9), p. 13.
21) 김영숙 (2002). *조선조후기궁중복식*. 서울: 신유, p. 76.